

## "공부도 중요, 인성교육은 더 중요"



김건수 교장 선생님

**삼** 국지에서 유래한 "재승박덕(才勝薄德)"이란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재주는 좋으나 덕이 부족함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조조의 휘하에 양수라는 영리한 부하가 있었는데, 조조의 심중을 정확하게 알아맞히는 재주에 여러 번 조조를 놀라게 하더니 결국 이를 시기한 조조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우월한 실력을 갖추기를 열망하지만 재능에 비해 덕이 부족하면 주위에 해를 끼치거나 따돌림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 늘 따르는 이웃이 있다 하여 "덕불고필유린

(德不孤必有隣)"이라는 공자님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영하 16도까지 오르내리며 유난히 길고 추웠던 이번 겨울에도 이 정도는 별게 아니라는 듯 겨울 방학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군인의 본분은 나라를 튼튼히 지키는 일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본분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돈을 열심히 버는 일이라면, 학생들의 본분은 열심히 공부하여 본인이 원하는 대학, 학과에 진학하는 일일 것입니다. 본분을 알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대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 중에는 공부 잘해서 우수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졸업 후 은사님을 잘 찾지 않는데 학창시절 공부는 비록 잘하지 못했어도 심성이 고운 학생들이 모교를 찾고 은사님에게 인사를 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성은 성품인 사람의 마음과, 품격인 사람됨을 말하는 것으로 인성교육은 인간적인 덕성 함양으로 '사람다운 사람'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인성교육이 바탕이 되지 못한 교육은 아무리 좋은 성격을 가진 학생을 배출한다 해도 이는 부실한 교육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위주 교육은 인간의 균형적 발달을 저해함은 물론 교육의 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직한 인성이 형성되어 있으면 자아실현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동적인 행동과 사회적 인일탈행동이 나타나고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큰 장애가 됩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이나 면접 전형에서 성적만큼 인성적 자질을 중요하게 반영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우리 학교는 인천시교육청 지정 '효 체험 프로그램 중심학교'로 선정되어 장덕수선생님과 효행봉사단을 중심으로 부모님에게 감사의 편지보내기, 세족식 등을 통해 효도의 의미를 깨우치고, 선생님들의 구두도 닦아드리고, 음료수도 드리며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를 기르고, 지역사회의 소외되신 어르신들을 찾아 생일잔치도 해드리며 어른 공경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의 이러한 경험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대한민국을 밝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재덕을 겸비한 동산인은 어디를 가나 인정받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